

# Market Intelligence

1.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..... 1

[참고자료] 주요 경제지표

2. 주간 이슈 ..... 4

- 병원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진출전략

## 주요 동향

## ◇ Fed 베이지북, 미국 경제 완만한 성장세 유지

- 고용은 실업률 하락, 안정적 임금상승률 유지, 소비지출도 대부분 지역에서 안정적 속도로 증가

※ 실업률(%) : 6.1(6월) → 6.2(7월) → 6.1(8월) → 5.9(9월)

※ 임금상승률(%) : 1.9('13.3Q) → -0.1('13.4Q) → 3.2('14.1Q) → 2.8('14.2Q)

※ 소비지출(%) : 2.3(5월) → 2.4(6월) → 2.2(7월) → 2.6(8월)

- 9월 산업생산 증가율, 전월대비 1.01%로 '12년 11월來 최대치

- 신규주문 및 민간소비 증가와 함께 저금리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제조업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분석

※ 산업생산 증가율(%) : 0.28(6월) → 0.23(7월) → -0.17(8월) → 1.01(9월)

※ 제조업생산 증가율(%) : 0.3(6월) → 0.8(7월) → -0.5(8월) → 0.5(9월)

## ◇ 유로존, 8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1.8% 감소

- 유로존 경제 1,2위국인 독일, 프랑스의 부진과 함께, 자본재와 중간재 생산이 각각 전월대비 4.8%, 0.7% 감소한데 기인

※ 산업생산 증가율(%) : -1.1(5월) → -0.3(6월) → 0.9(7월) → -1.8(8월)

- 국가별 : 독일, 프랑스 등은 감소, 이탈리아, 스페인 등은 상승

※ 독일(%) : -1.6(5월) → 0.4(6월) → 1.6(7월) → -4.0(8월)

※ 프랑스(%) : -1.6(5월) → 1.3(6월) → 0.3(7월) → 0.0(8월)

※ 이탈리아(%) : -1.2(5월) → 0.9(6월) → -1.0(7월) → 0.3(8월)

※ 스페인(%) : -0.66(5월) → -0.87(6월) → 0.07(7월) → 0.19(8월)

- 한편, Fitch사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'부정적'으로 하향 조정함, 신용등급은 'AA+'로 유지(10.14일)

-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에 관한 정책이행 리스크 등으로 프랑스 경제 회복세가 약화되고 이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 가능성 등이 배경

## 주요 동향

### ◇ 중국, 9월 수출 작년 2월 이래 최대 증가

-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.3% 증가한 2,137억달러, 수입은 7.1% 증가한 1,827억달러, 무역수지는 310억달러 흑자기록
- 가전제품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, 특히 지난달 출시된 아이폰 6 생산에 따라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
  - ※ 수출증가율(%) : 7.3(6월) → 14.5(7월) → 9.4(8월) → 15.3(9월)
  - ※ 무역수지(억달러) : 316(6월) → 473(7월) → 498(8월) → 310(9월)

### ◇ 일본, 소비자 신뢰 및 산업가동률 하락

- 9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(41.2)대비 하락한 39.9로 5월이래 최저 수준
- 소비세율 인상 충격 등에 기인한 것으로, 내각부는 소비자신뢰에 대한 기조판단을 전월 '둔화중(Moderating)'에서 '정체중(Stalling)'으로 하향
  - ※ 소비자 신뢰지수 : 41.1(6월) → 41.5(7월) → 41.2(8월) → 39.9(9월)
- 8월 산업가동률 지수도 전기기계, 운송장비 부문의 감소 등으로 5개월 연속 하락하며 96.4를 기록
  - ※ 산업 가동률 지수 : 102.3(5월) → 98.9(6월) → 98.1(7월) → 96.4(8월)

### ◇ IMF,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증가 경고

- 향후 1년내 경기침체 확률 상향 조정
  - ※ 미국 : 11.6%(4월) → 14.0%(10월),
  - 유로존 : 20.9%(4월) → 37.6%(10월),
  - 일본 : 18.2%(4월) → 24.1%(10월),
  -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기타 아시아 지역 : 0.1%(4월) → 0.3%(10월)

## 참고자료

## 주요 경제지표

### ① 외환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10. 10	'14. 10. 17	전주비
₩/US\$	1,055.4	1,070.5	1,065.9	△4.6
₩/100¥	1,002.3	993.6	1,003.8	10.2
CNY/US\$	6.0618	6.1311	6.1240	△0.0071
¥/US\$	105.30	107.74	106.19	△1.55
US\$/€	1.3736	1.2705	1.2805	0.0100

### ② 채권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10. 10	'14. 10. 17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86	2.26	2.25	△0.01
미국 국채(10년)	3.03	2.28	2.19	△0.09

### ③ 주식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10. 10	'14. 10. 17	전주비
한국 KOSPI	2,011.34	1,940.92	1,900.66	△40.26
미국 DJIA	16,576.66	16,544.10	16,380.41	△163.69

### ④ 해운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10. 10	'14. 10. 17	전주비
BDI 지수*	2,247	930	944	14.00
HRCI 지수**	497.5	540.0	533.5	△6.5

\*Baltic Dry Index: 벌크선 운임지수

\*\*Howe Robinson Container Index: 컨테이너선 용선지수

### ⑤ 유가

(US\$ / 배럴)

유 종	'13년말	'14. 10. 10	'14. 10. 17	전주비
WTI유 현물	98.99	85.82	82.98	△2.84
Brent유 현물	108.34	90.21	85.68	△4.53
두바이유 현물	103.96	88.04	83.85	△4.19

- ◆ 한국은 세계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수중심의 사업구조로 인해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낮았음. 정부가 병원서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하고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있는바, 병원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분석하고 진출전략을 제시하고자 함.

## 1. 해외진출 현황

-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'09년 49개 기관에서 '13년 111개 기관\*으로 급증하였으며 중국, 미국을 중심으로 19개국에 진출 (붙임 1 참조)

\* ('09) 49개 → ('10) 58개 → ('11) 79개 → ('12) 91개 → ('13) 111개

- 중소형 병원 중심으로 진출하였으나 최근 대형 병원의 해외진출 증가
  - 진출형태는 단독진출이 35%, 기술전수 17%, 프랜차이징 15% 순
  - 111개 기관중 23개 의료기관이 철수(21%)하였으며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진출한 경우 실패사례가 많음
- 현재 78개 의료기관이 추가적인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미 있는 성공모델이 부족함 (붙임 2참조)

### [성공 사례]

- 차병원은 단계적인 현지 진출 전략을 통해 미국 대형 병원을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중

### [실패 사례]

- '00년 중국 의료시장 개방으로 SK컨소시엄 등 다수 병원이 중국에 진출하였으나 현지화 실패로 상당수가 철수
- 삼성서울병원은 '10년 UAE에 두바이 메디컬 센터를 설립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'13년 철수

## 2.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정책

- '12년 이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정부간 협력(G2G) 기반의 프로젝트 개발, 민·관 협업구조 구축,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을 강화
  - '중동-중앙아-러시아-중국-몽골-동남아'에 메디컬 코리아 벨트를 조성한다는 비전하에 중동을 중심으로 한 G2G 사업개발 프로젝트 추진
  -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진출국에서 의료기관 개설, 의료인 면허 인정 등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시 자회사 형태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
  - 민관합작으로 의료수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회사인 코리아메디컬홀딩스(KMH)\*를 설립('13)하였으며 해외진출 전문펀드 설립을 추진
- \* 보건산업진흥원, 산업은행, 한국의료수출협회, 5개 민간병원(보바스·명지·세종·대전 선·제주한라 병원)이 참여

### < 일본의 병원서비스산업 수출 지원 정책 (붙임 3 참조) >

- ▶ '13년에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국가차원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일본정부 주도로 22개국에 병원 설립을 추진(17개국 계약 완료)
- ▶ 민·관이 참여하는 Medical Excellence Japan은 해외 시장 정보 제공, 현지 파트너 물색, 관련 사업자의 교육 및 현지 정부와의 교섭 등을 담당
- ▶ ODA와 일본국제협력은행(JBIC)의 지원 확대(지분 투자 등)

### 3. 해외진출시 문제점

- 국가별로 상이한 법·의료제도, 사업역량 부족, 현지화 실패(언어, 인력관리 등), 낮은 브랜드 인지도, 해외진출 자금조달의 어려움 발생

문제점	주요 내용
법·제도	·국가별 법·제도 및 인허가 정보부족 ·의료면허 인정문제
사업역량 부족	·진료위주 경영으로 인해 병원진출 기획 및 프로젝트 진행을 주도할 전문 인력 부족 ·해외진출 경험부족으로 운영 및 성장전략 부재
브랜드 인지도	·세계적인 의료수준대비 낮은 해외 인지도 - 암 생존율*, 간이식 성공률(96%) 등은 미국보다 우위 ·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(JCI) 등 국제 인증을 받은 병원의 수가 타국가 대비 적음(우리나라 39개, 태국 45개)
자금조달	·병원들의 수익성 악화 - 국내 대형 병원의 '09~'12년 매출액은 연평균 7% 성장, 영업이익은 연평균 23% 감소 ·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

\* (한국/미국) 위암 65%/26%, 간암 25%/13%, 자궁암 80%/70%, 대장암 71%/65%

### 4. 해외진출 전략

- 병원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은 현지국 법·제도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

- 정부간 채널을 활용하여 의사면허 인정, 비자 등의 문제 해결 노력 필요
  - \* 정부 주도로 '한국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 펀드(500억원 규모)'가 '15년 상반기에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및 당행 등이 참여할 예정
- ODA를 활용하여 개도국앞 병원서비스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은행,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모색도 바람직

\* EDCF를 통해 34건의 병원사업(건설·기자재 공급)에 4,349억원을 지원

□ 병원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시 대형병원의 사업성 악화 등으로 상업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 **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**

- 당행은 병원건설 사업은 지원해 왔으나, 병원서비스산업은 지원 사례가 없어 지분 투자 등 금융지원 강화 노력 필요

\* '09년부터 7건의 병원건설 사업에 308억원의 보증을 지원

□ **단계적인 해외 진출로 실패 위험을 낮추고 국가별·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출전략 수립 필요**

- 초기에는 현지 의료인 연수, 위탁 경영 실시 및 해외 네트워크와 사업 경험이 풍부한 종합상사·건설사 등과 동반 진출을 추진

- 붙임 1) 우리나라 병원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 
2) 해외진출 사례  
3) 일본의 병원서비스산업 수출지원 정책  
4) 우리나라의 병원서비스산업 수출 주요 지원 기관

확 인 자	팀 장 이 윤 관
작 성 자	책임연구원 이 미 혜



## [붙임 1] 우리나라 병원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현황

### □ 국가별 진출현황

국가	프로젝트 수
중국	38
미국	36
베트남	8
몽골	8
카자흐스탄	5
UAE	2
러시아	2
기타	12
합계	111

### □ 의료기관 규모별 진출현황

의료기관 규모	프로젝트 수
의원 <sup>1)</sup>	66
병원급 <sup>2)</sup>	22
상급 <sup>3)</sup>	15
종합 <sup>4)</sup>	4
기타	4
합계	111

주: 1) 의원: 입원환자 30인 병상 미만인 의료기관

2) 병원: 입원환자 30인 병상 이상 수용하는 의료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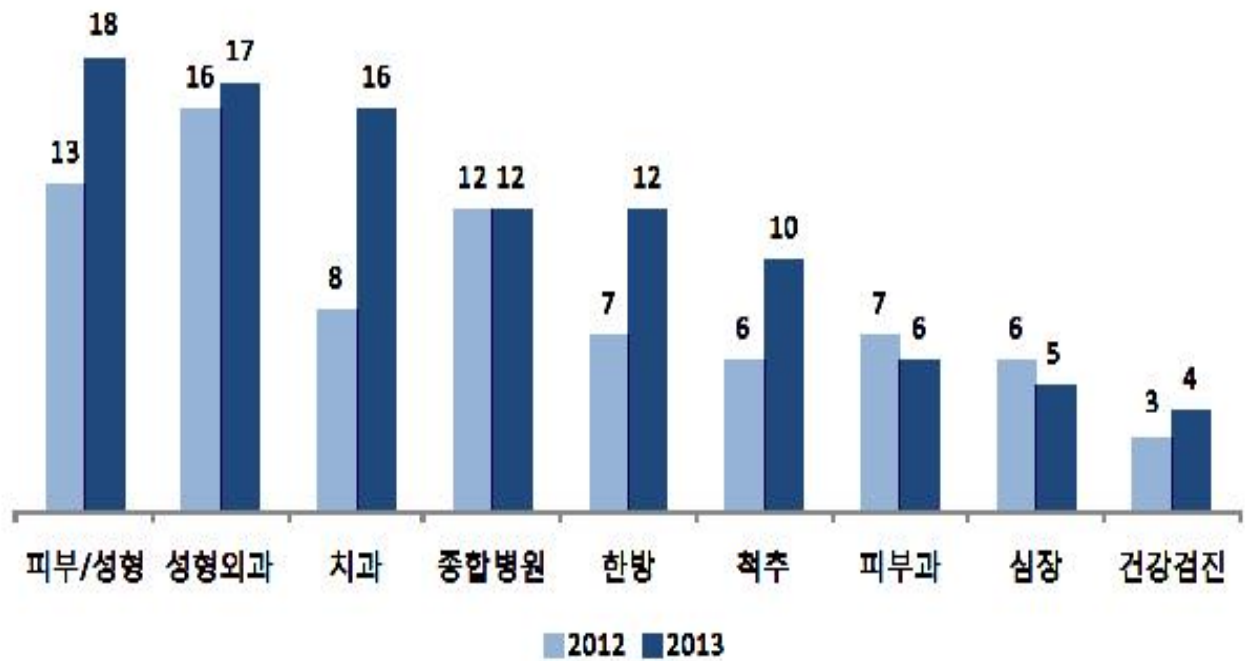
3) 상급병원: 종합병원중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의료법에 따른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춘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

4) 종합병원: 100인 병상 이상 및 7~9개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

### □ 해외 진출 형태

진출형태	비중
단독진출	35.2%
기술전수	17.2%
프랜차이징	14.9%
합작	12.6%
연락사무소	6.9%
라이센싱(브랜드)	6.9%
위탁운영	3.4%
자선진료소	2.3%
M&A	2.3%
병원내 병원	1.1%
합계	100.0%

## □ 주요 진료과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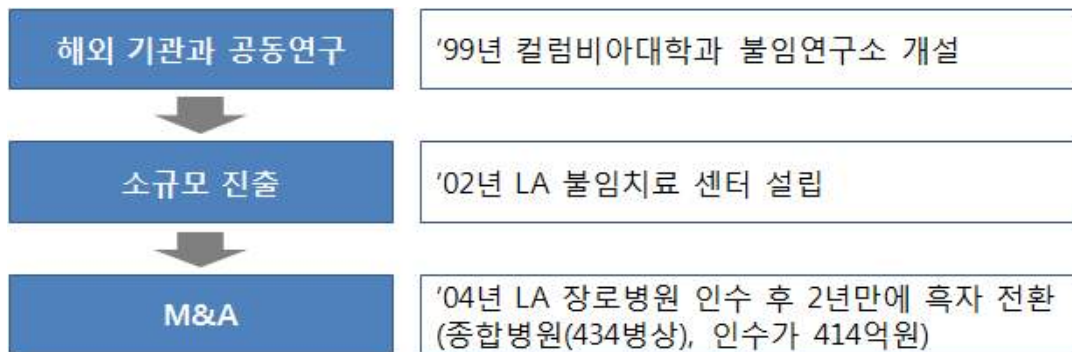
자료: 보건산업진흥원

## [붙임 2] 해외 진출 사례

### □ 우리나라

#### ○ 성공사례 : 차병원

- 단계적인 현지 진출 전략, 경영마인드를 보유한 전문인력 확보, 현지 인력 활용이 성공요인



주: 인수자금은 자회사인 차바이오텍(신약 및 병원경영지원기업) 상장을 통해 조달

#### ○ 실패사례 : SK아이캉 병원\*

- '04년 중국에 진출하였으나 현지 파트너와 마찰 및 투자자간 갈등, 현지화 실패로 '09년 지분을 매각하였으나 이를 인수한 중국기업은 성공적으로 운영중

\* SK(주)와 한국내 5개 의료사업 파트너가 70%, 중국 위생부와 기업이 30%를 투자하였으며 경영은 SK(주)가 담당

### □ 동남아

#### ○ 싱가포르 최대 병원그룹인 Parkway는 중국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와 지역 확장을 추진

- 초기에는 소형 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여 성공 사례를 만든 이후 위성도시에 진료소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파트너와 JV를 설립

- 말레이시아 IHH는 프리미엄 시장 공략, 높은 브랜드 인지도, 대상국가 Top-tier 병원 M&A를 통해 아시아 최대 병원운영기업으로 도약 (9개국 33개 병원)
- 싱가포르 최대 병원그룹인 Parkway와 Pantai 지분 인수('10, 100%), 터키 최대 병원 Acibadem 지분 인수('12, 60%), 인도 최대 병원 Apollo 지분 인수('12, 10.8%)
- \* 태국, 인도 등 다수 아시아 국가는 병원의 해외진출 보다는 병원과 관광을 결합하여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추진

### [붙임 3] 일본의 병원서비스산업 수출지원 정책

- '13년부터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의료 수출을 추진하며 22개국에 일본 정부 주도로 병원 설립을 추진
  - 22개국중 17개국이 일본정부와 계약을 완료(러시아, UAE, 인도 등)
  - 민관이 참여하는 Medical Excellence Japan('13.4)\*는 해외 시장 정보 제공, 현지 파트너 물색, 관련 사업자의 교육 및 현지 정부와의 교섭 등을 담당
- \* 의료기관, 컨설팅사 등이 참여
- 해외 네트워크에 강점을 보유한 **종합상사**를 중심으로 병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ODA 활용과 일본국제협력은행(JBIC)의 자금지원 확대
  - 미쓰이물산은 '11년 아시아최대 의료업체인 IHH의 지분 20%를 인수하였으며 향후 5년 동안 중국, 인도에 17개 병원을 오픈할 계획
  - 미쓰비시상사는 '15년부터 6년간 필리핀에 10개 병원건설 추진\*
    - 중소형 규모(병상 50~150개)로 병원경영은 현지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시설이나 의료기기 리스를 통해 수익 창출할 계획
- \* 일본 ODA를 담당하는 JICA가 자금의 최대 70%를 지원 예정
- 도요타통상은 세콤, 인도 대기업 등과 합작으로 '14년 인도 방갈로르에 종합병원을 개원
  - JBIC은 최초로 의료사업에 지분 투자(\$10.5백만불)

# [붙임 4] 우리나라의 병원서비스산업 수출 주요 지원 기관

주요 지원기관		수행 기능				
		시장조사 및 정보 제공	인프라, 제도 및 정책연구	의료수출 해외영업	컨설팅 서비스	프로젝트 매니저
공공	보건산업진흥원	●	●	●	●	●
민·관합작	KOTRA	●			●	
	코리아메디컬홀딩스					●
민간	한국의료수출협회	●		●		
	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			●	●	●
	병원의료산업 수출위원회	●				

자료: 보건산업진흥원